

唐代 書僧 高閑의 書藝와 역대의 평가*

禹 在 鎬**

<目 次>

I. 서론	IV. 고한 서예에 대한 당 이후 평가
II. 서승 고한과 고한의 서예	V. 결론
III. 고한 서예를 평한 唐代詩文	

I. 서론

唐代에는 학식과 문화적 소양을 갖춘 승려가 상당히 많이 출현하였다. 시를 잘 지었던 詩僧, 그림을 잘 그렸던 畫僧, 서예에 뛰어났던 書僧 등이 등장하여 詩僧, 畫僧, 書僧이란 용어도 일반적으로 사용되었다. 특히 당대 불교의 성행에 따라 승려의 수가 많아졌고, 玄奘을 대표로 하는 불교 경전 번역이 크게 유행하였다. 출판 인쇄술이 아직 발달되지 않은 상태에서 불경의 전파와 개인의 공덕을 쌓기 위한 일반인과 승려들의 寫經 행위가 보편화되었던 까닭에 서승이 특히 많았다.

문헌에 기록된 당대에 명성을 날린 서승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다.1)

* 이 연구는 2019학년도 영남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에 의한 것임.

** 嶺南大學校 中國言語文化學科 教授

1) 朱關田, 《中國書法史: 隋唐五代卷》(江蘇教育出版社 2014.6 4刷) 209-221쪽, 周小儒·張揚, 《中國歷代僧侶書法》(山東畫報出版社, 2011) 36-71쪽, 孫小力, 《(墨海禪蹤)中國書僧》(中國佛教文化叢書, 北京 華文出版社, 1997), 그리고 田光烈, 《佛法與書法》(佛學對中國傳統書法藝術之影響及追求, 頂淵文化事業有限公司, 民國82.3) 176-196쪽 참조.

이들 당대 서승들은 대체로, 懷素나 高閑처럼 본인이 창작한 서예 친필이 현전하며 당대 및 당 이후 시인과 평자들의 시가와 평론이 전해지는 서승, 廣利大師 矚[矚]光이나 禪月大師 貫休처럼 당대 및 당 이후 시인과 평자들의 시가와 평론은 남아 있으나 서예 작품은 전하지 않는 서승, 獻上人처럼 본인이 창작한 시가도 서예 작품도 전하지 않지만 《全唐詩》에 수록된 詩題에 이름이 전해지거나 기타 문헌 자료에 법명이 남아 있는 서승 등 몇 가지 부류로 나눌 수 있다.

이중 본인이 창작한 서예 작품이 현전하면서 당대 및 후대 시인과 평자들의 시가와 평론이 전해지는 대표적인 서승으로 회소와 고한을 들 수 있다. 필자는 회소의 서예와 懷素 草書歌에 대해서는 이미 분석해본 적이 있으므로,²⁾ 당대 서승에 관한 두 번째 연구로 본고에서는 당대 서승 고한의 서예와 이를 평하거나 노래한 당대의 詩文, 그리고 당 이후 역대 문인들의 고한 서예에 대한 평가를 분석해보고자 한다. 고한은 회소와 함께 당대의 초서 진적과 그의 초서를 노래한 당대의 시문이 현재까지 남아 있는 유일한 서승이므로, 고한의 서예와 그의 초서를 칭송한 당대의 시문 및 역대의 평가를 소개 분석해보는 것은 당대 狂草 및 서예사 연구에 있어 나름대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³⁾ 하지만 고한의 서예를 평한 역대 제가의 시문과 평가를 분석하기에 앞서, 서승 고한과 그의 서예가 비교적 생소하므로, 먼저 고한의 간략한 생애와 고한의 서예 작품에 대해 개괄적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2) 禹在鎬, 〈懷素 草書와 역대 懷素 草書歌에 대하여〉(《中國語文學》 77輯, 嶺南中國語文學會, 2018.4) 참조.

3) 지금까지 皎然, 齊己 등 당대 시승의 시와 시론에 대한 연구는 상당히 이루어져 있으나, 일반 문인들로부터 사랑받았던 당대 유명 서승들의 서예와 그들의 서예를 읊은 서예시에 대한 연구는 국내에 거의 없는 듯하므로, 당대 서승의 서예와 서예시에 대한 연구의 일환으로 본고를 구성해보았다.

II. 서승 고한과 고한의 서예

고한의 생졸년도는 확실하지 않지만, 대체로 晚唐 때인 宣宗(846~859)과 懿宗(859~873) 시기에 활동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宋代의 《宋高僧傳》(권30)에서 “또 湖州 開元寺의 스님 고한은 본래 烏程(지금의 浙江省 吳興) 사람이었다. …… 宣宗이 불법을 중흥시킬 때, 궁중으로 불러들여 어전에서 초서를 쓰게 하였고, 마침내 자색 가사를 하사하였으며, 여전히 미리 洗穢戒壇[마음을 씻고 죄를 참회하는 의례를 행하는 제단]에 임하게 하였고, 十望大德[열 분의 명망 있는 큰 은덕이 있는 분]이란 호를 내려주었다. 본성과 심성이 절개와 지조가 있어, 우뚝하니 자신의 생각을 굽히기 어려웠다. 늙어서는 귀향하고자 하여 처음 출가해 승려가 되었던 본사에서 생을 마쳤다. 제자인 鑒宗은 칙서가 내려져 無上大師로 불리었는데, 또한 고한의 筆法을 체득하였다. ……”라고 기록한 약전이 보인다.⁴⁾ 이후에 출간된 여러 전적에서도 역시 고한의 사적을 서술하고는 있지만 전체적인 내용은 《宋高僧傳》이나 《宣和書譜》(권19)와 유사한 양상을 띤 채로 그대로 전수되었고,⁵⁾ 더 이후에 나온 《浙江通志》(권199), 《大清一統志》(권223), 《吳興備志》(권25)에서도 대략적인 내용이 그대로 답습되었다.

대체로 고한은 서예에 뛰어났고, 초서를 특별히 더 잘하였는데, 혹자는

4) 《宋高僧傳》(贊寧 撰, 全二冊, 中華書局, 1987.8) 권30 〈雜科聲德篇〉第12, “又湖州開元寺釋高閑, 本烏程人也. …… 宣宗重興佛法, 召入對御前草聖, 遂賜紫衣, 仍預臨洗穢戒壇, 號十望大德. 性情節操, 羸然難屈. 老思歸鄉, 終於本寺. 弟子鑒宗, 勅署無上大師, 亦得閑之筆法. ……”(고한의 약전은 〈唐天台山禪林寺廣修傳〉에 부기되어 있다.) 이하 書論 관련 원전류는 원전 텍스트를 참조하지 못한 경우에 文淵閣四庫全書 電子版(上海古籍出版社, 2007, 3.0版)을 참고하였음을 밝혀둔다.

5) 《全唐文》 권920 〈高閑小傳〉과 陳思의 《書小史》(권10), 元 陶宗儀의 《書史會要》(권5)에 수록된 高閑 약전은 대체로 《宋高僧傳》의 내용과 대동소이하다. 宋初 《宣和書譜》(권19)부터는 “자못 한유에게 인정을 받은 바 있었는데 한유는 서문을 지어 그를 전송하였다.(頗爲韓愈所知, 作序送之.)”는 내용이 추가되기는 하지만, 《宋高僧傳》의 기술이 이 중에 가장 길고 자세하다.

그의 서예가 張旭에게서 나왔다고 하거나,⁶⁾ 혹은 懷素의 초서를 배웠다고 하고,⁷⁾ 어떤 책에서는 이 두 가지 견해를 모두 합쳐 고한의 초서는 장옥과 회소의 초서에서 나왔다고 하는 등 평자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기도 하다. 이는 회소의 서예가 본시 장옥의 狂草를 스승으로 삼았다는 견해가 있어 그 사승관계가 이어진다고 할 수 있으므로, 모두 전혀 근거 없는 주장이 아닌 셈이다.

당나라 때의 수많은 서승 중에서 석각 이외의 서예 진적을 현재까지 전하고 있는 이로는 회소와 고한과 鑒眞 등을 꼽을 수 있는데, 고한은 현재 자신의 진적으로 〈草書千字文〉 한 작품을 남기고 있다. 그러나 송대의 《宣和書譜》(권19)에는 御府에 소장하고 있는 고한의 서예 작품으로 초서 〈五原帖〉과 行書 〈中丞帖〉과 〈雨雪帖〉이 있다고 기록하고 있고, 송대 陳騏가撰한 《南宋館閣錄·續錄》(권3)에는 고한의 초서 두 작품과 초서로 쓴 한유의 〈送高閑上人序〉가 있다고 하였으며, 송 米芾의 《書史》에서는 당나라 고한의 초서 〈令狐楚詩〉가 尚書 李常의 집에 있다고 하였고,⁹⁾ 역시 송 米芾의 《寶章待訪錄》에는 닥나무 종이에 쓴 고한의 초서천자문 진적이 承議郎 李熙의 처소에 있고, 초서 〈令狐楚詩〉 진적은 戶部尚書 康季常의 집에 있는데, 미불 본인은 湖州에 있는 돌에 새겨진 石本을 보았다고 기록하고 있다. 그 밖에 〈草書千字文〉과 〈令狐楚詩〉 이외의 고한 작품을 수록하고 있는 전적으로는 明 張丑의 《清河書畫舫》(권6下)에 수록된 〈九原帖〉(이는 아마도 〈五原帖〉의 오기인 듯함)이 있고, 淸 孫岳頌의 《御定佩文齋書畫譜》(권92)와 청대 서화 감정가인 刑部左侍郎 卞永譽의

6) 韓愈의 〈送高閑上人序〉에 “今閑之於草書，有旭之心哉。”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후 宋 董道의 《廣川書跋》(권8)이나 元 陶宗儀의 《書史會要》 등의 高閑 조목에서도 한유의 영향으로 인해 “其書法出於張顛”이라며 그대로 답습하였다.

7) 宋代 陳思의 《書小史》에 나온다. “高閑善草書，師懷素，深窮體勢。”

8) 이러한 견해는 吳旭春의 〈中晚唐草書僧高閑散論〉(《書法賞評》 6期, 2010) 17 쪽에서 언급되어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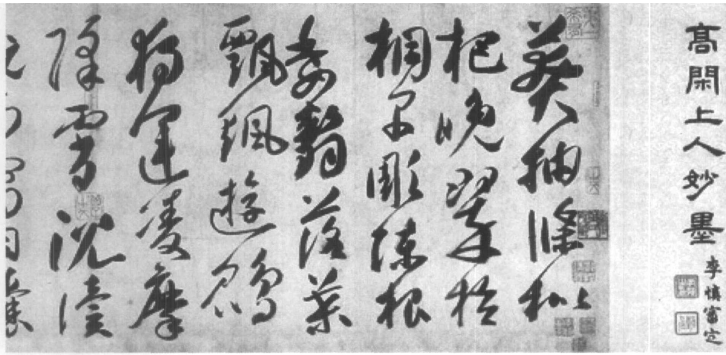
9) 다른 전적에서는 모두 〈令狐楚詩〉 진적은 戶部尚書 康季常의 집에 있다고 하였으니, 여기서 李常이라고 한 것은 季常의 잘못된 듯하다.

《式古堂書畫彙考》(권4)에는 역시 〈五原帖〉과 行書 작품〈中丞帖〉과 〈雨雪帖〉이 기록되어 있으니, 당 이후 송원대까지 전해졌던 고한의 진적 서예작품으로는 대략 초서인 〈草書千字文〉, 〈送高閑上人序〉, 〈令狐楚詩〉, 〈五原帖〉과 행서 작품인 〈中丞帖〉, 〈雨雪帖〉이 세상에 존재했었던 것으로 보인다.

후대에 전해졌던 고한의 작품도 많지 않았지만, 그나마 이들 몇 안 되는 작품조차도 〈草書千字文〉 한 점을 제외하고는 모두 실전되었고, 〈草書千字文〉 역시 殘卷으로만 현존하고 있다.¹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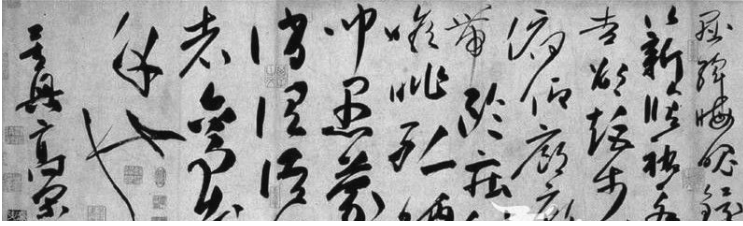
* 고한의 〈草書千字文〉 紙本 처음과 마지막 부분.

上海博物館 소장. 세로 30.8cm, 가로 331.3cm.¹¹⁾



10) 吳敢의 〈唐釋高閑草書千字文殘卷及其相關問題〉(《收藏家》 2期, 2003) 53쪽에서는 현존하는 고한의 진적 작품으로 고궁박물관에 소장된 宋代의 拓本 〈絳帖〉 後10권에 〈此齋帖〉과 〈正嘉帖〉이 더 전해지고 있다 하면서 고한의 천자문과 이 두 법첩의 필적과 풍격을 비교하였다.

11) 현존하는 고한의 초서 진적 유일본으로, 지금 남아 있는 부분은莽자 이하 52행, 총 242자이다. 전반부 망실된 부분은 元代 鮮于樞가 보충하여 써넣었다고 하였으니, 이 천자문은 원대에 이미 전반부가 유실되었고, 清代에는 鮮于樞가 보충하여 써 넣었다는 부분 또한 망실되었음을 알 수 있다. 劉宏偉·林鷹은 〈關於唐代湖州書家高閑千字文法書辨偽—兼談上海市博物館所藏高閑草書千字文卷爲偽作〉(http://blog.sina.com.cn/s/blog_683986c10102wbg8.html)이란 논문에서 현재 上海博物館 소장 고한의 〈草書千字文〉은 偽作이라 주장하였다.



Ⅲ. 고한의 서예를 평한 唐代 詩文

고한의 서예를 평하고 있는 唐代의 詩文으로는 散文 1편과 詩歌 3수가 있다. 그 중 가장 유명한 작품은 《全唐文》 권555에 수록된 韓愈(768~824)의 〈고한 스님 송별사(送高閑上人序)〉이다. 몇몇 평자들은 고한과 그의 초서가 한유의 문장으로 인해 더욱 유명해졌다고도 한다. 이러한 견해는 宋代 葉夢得的 《石林避暑錄》에서 고한의 초서를 평하면서 “대체로 한유의 서문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이름이 더욱 무거워졌다.”고 한 언급에서 그 일단을 엿볼 수 있다.¹²⁾ 그러나 고한 초서를 평하고 있는 한유의 〈고한 스님 송별사(送高閑上人序)〉는 문장의 진위가 어떠한지에 대한 견해가 평자에 따라 상반되는 경우가 있어 역대로 의견이 분분하였다. 전체 문장을 인용하기 보다는 초서와 고한과 관련 있는 내용만을 인용해보고자 한다.

예전에 장옥은 초서에 뛰어나 다른 기예를 연마하지 않았는데, 기쁨과 노여움, 궁색함과 곤궁함, 근심과 슬픔, 유쾌함과 즐거움, 원한과 그리움, 거나하게 취하거나 무료함, 불평 따위가 마음을 움직여 들끓게 되면 반드시 초서에서 그것들을 쏟아내었습니다. 그는 외계 사물을 관찰해 산과 강, 낭떠러지와 골짜기, 새와 짐승, 벌레와 물고기, 초목의 꽃과 열매, 해와 달, 하늘에 늘어선 별, 바람과 비, 물과 불, 천둥과 번개, 노래와 춤, 전쟁과 전

12) 宋 葉夢得, 《石林避暑錄》 卷3 “蓋得韓退之序, 故其名益重.”

투 등 천지간에 있는 사물의 변화를 살폈는데, 그 중에서도 사람을 기쁘게 하고 놀라게 하는 것은 온통 초서에 기탁했습니다. 따라서 장욱의 초서는 변화가 많고 생동감이 넘쳐 마치 신출귀몰하는 것과 같이 그 단서를 헤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그 일에 평생토록 종사했기 때문에 후세에 이름을 남기게 된 것입니다. 지금 고한은 초서에 대해서 장욱의 마음 씩씩이와 같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런 마음 씩씩이를 갖추지 못하고 표면적인 자취만을 좇는다면 결코 장욱과 같은 경지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장욱과 같은 경지에 도달하는 데는 방법이 있으니, 이롭고 해로운 것은 반드시 분명히 하고 지극히 경미한 것이라도 그냥 넘기지 않으며, 치열한 정감이 마음속에서 불타올라야 하고 사사로운 욕망 추구를 위해 진취적으로 분투노력하며, 얻는 것도 있고 잃는 것이 있더라도 왕성한 패기가 사그라지지 않은 다음에, 그 모든 것들을 온통 서예로 쏟아내어야만 비로소 장욱의 경지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지금 고한은 불교를 신봉해 삶과 죽음을 동일시하고 마음을 교란시키는 일체의 외계 사물에서 해탈했는데, 이는 그의 마음 씩씩이가 필시 고요해서 감정의 과란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며, 세상일에도 담담해 달리 애호하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고요하고 담담한 것이 만나면 마음이 소극적으로 변해 맥이 빠지고 위축되고 활기마저 없어서 정신이 붕괴해 수습할 도리가 없게 되니, 서예에 있어서도 이와 같은 꼴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듣건대 불교도들은 마술을 잘 부리고 사람의 눈길을 현혹시키는 재주가 많다고 하는데, 고한도 마땅히 그런 술법에 통달한 것인지 나는 알 수가 없습니다.¹³⁾

이 서문의 창작연대는 분명하게 알려져 있지 않지만, 한유는 고한이 주

- 13) 한유의 〈送高閑上人序〉 “往時張旭善草書，不治他技。喜怒窘窮，憂悲愉佚怨恨思慕酣醉無聊不平，有動於心，必於草書焉發之。觀於物，見山水崖谷，鳥獸蟲魚，草木之花實，日月列星，風雨水火，雷霆霹靂，歌舞戰鬥，天地事物之變，可喜可愕，一寓於書。故旭之書，變動猶鬼神，不可端倪，以此終其身而名後世。今閑之於草書，有旭之心哉！不得其心而逐其迹，未見其能旭也。爲旭有道，利害必明，無遺錙銖，情炎於中，利欲鬪進，有得有喪，勃然不釋，然後一決於書，而後旭可幾也。今閑師浮屠氏，一死生，解外膠。是其爲心，必泊然無所起；其於世，必淡然無所嗜。泊與淡相遭；頽墮委靡；潰敗不可收拾；則其於書得無象之然乎！然吾聞浮屠人善幻，多技能，閑如通其術，則吾不能知矣。” 해석은 이종한 역주, 《한유산문역주2-書啓·贈序》(전5책, 소명출판, 2012.6) 434-436쪽의 번역을 그대로 따랐다.

로 기거하였던 湖州에 평생토록 가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 문장은 한유와 고한 둘 다 수도인 長安에 있을 때 지은 것으로 추정된다.¹⁴⁾ 韓愈는 長慶 4년(824년)에 사망하였고, 고한은 大中 4년(850년)에 宣宗에게 자색도포를 하사받았으니, 이는 한유가 사망한 지 26년 정도 뒤인 고한 나이 50 중후반 무렵이었다. 따라서 한유의 이 문장은 한유가 장안에 있었을 때 지었을 것이라 본다면, 대체로 한유 만년, 고한이 20대 중반 이전에 지어졌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한유가 평가한 고한의 초서는 비교적 젊은 시절의 고한 초서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고한의 초서는 이후 많은 변화와 발전이 있었을 것이다.

이 글은 서예를 논한 송별사로 이체를 띤다. 먼저 수많은 사례를 통해 어떤 일이든 일정한 수준에 이르기 위해서는 전심전력을 다해 몰입하고 평생 즐기면서 해야 하는데, 서예도 마찬가지로 일반적 도리를 말했다. 이어 장욱이 초서에서 성공을 거둔 요인을 들어 고한의 초서를 평했는데, 현실에서 배태된 치열한 감정이 빠진 불교도의 마음 씩씩이와 세사사에 대한 냉담한 태도로는 결코 초서에서 훌륭한 경지에 이를 수가 없음을 내비쳤다. 즉 현실과 대면하지 않는 소극적이고 무기력한 태도로는 장욱과 같은 경지에 이를 수가 없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불교도들이 잡기와 같은 마술에 뛰어난 점을 들어 고한과 불교를 풍자하는 뜻을 던지시 함축하고 있다.¹⁵⁾

14) 盧燕平은 〈韓愈創作心態管窺—從送高閑上人序談起〉(《西北師大學報》(社會科學版) 第35卷 第5期, 1998.9) 25쪽에서 이 문장이 〈送孟東野序〉와 같은 시기에 지어졌으리라 추정하였다. 〈送孟東野序〉는 한유 33세 때인 貞元 16년(800년)에 지어졌고, 한유는 고한보다 대략 25세 정도 더 많은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러하다면 한유가 고한에게 이 서문을 지어주었을 때는 고한의 나이가 10여 세 전후밖에 되지 않아 모순이 발생한다.

15) 이상은 이종한 역주 《한유산문역주2-書啓·贈序》(진5책, 소명출판, 2012.6) 436-437쪽의 해제와 역주자의 견해를 그대로 받아들였다. 하지만 일설에는 이 문장의 마지막 부분 “則其於書得無象之然乎!”를 “그는 서예에서 일체의 물상을 초월한 경계를 얻은 것인가?”라고 풀이하기도 하는데, 이렇게 풀이하면 고한 서예의 수준을 상당히 높게 평가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평가는 한유의 불교도에 대한 시각과 태도와 상치되는 일면이 있다.

그런데 이 문장은 마치 마무리를 미처 맺지 못한 글 같은 느낌이 든다. 아울러 이 서문이 고한 초서의 포핌 중 어디에 해당되는지에 대해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하였고, 이로 인해 역대로 이 문장의 진위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서로 다른 견해가 있었기 때문에 현대에도 이 문장과 관련한 많은 논문이 발표되었다.¹⁶⁾ 그러나 韓愈의 詩文에 보이는 당시의 승려는 高閑, 文暢, 澄觀, 惠師, 靈師, 秀禪師, 廣宣, 盈上人, 大顛, 無本 등 십여 명 정도인데, 이들 중 한유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이가 거의 없다. 대부분 조소와 기롱의 대상이 되었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위의 한유 문장 역시 고한과 불교를 폄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보는 게 맞을 듯하다. 단지 고한의 면전에서 직접적으로 고한을 조롱하거나 폄하하기보다는 우회적으로 비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송대 이후 많은 평자들이 고한에 대한 한유의 평가가 부정적이라 본 것은 이와 관련이 있을 듯하다.

한유의 〈고한 스님 송별사(送高閑上人序)〉 이외에 《全唐詩》에는 詩題에 고한을 거론한 시가 모두 3수 전해지고 있다. 《全唐詩》 권384에 실

16) 필자가 참고한 한유의 〈送高閑上人序〉 관련 논문은 다음과 같이 몇 가지로 분류할 수 있었다. 첫째, 甘中流의 〈韓愈送高閑上人序注析〉(《書法世界》 第8期, 2003)과 梁德水の 〈韓愈送高閑上人序解讀〉(《青少年書法》(青年版), 2006. 11)과 周萌의 〈送高閑上人序解題〉(《保定學院學報》, 第22卷 第2期, 2009.3) 등은 단순히 한유의 〈送高閑上人序〉를 역주하여 풀이하고 해석한 논문이다. 둘째, 蔣介夫의 〈一文多義—談藝與辟佛—讀韓愈送高閑上人序〉(《閱讀與寫作》 5期, 1996)와 吳旭春의 〈是褒是貶, 是對是錯—再論韓愈送高閑上人序〉(《書法賞評》 第4期, 2008) 등은 고한의 초서를 칭찬하는지 폄하하는지에 대한 나름의 진위를 분석해보고자 하는 논문들이다. 한유와 고한의 나이 차이와 지위의 차이를 보았을 때 고한 초서에 대한 한유의 격려나 배려의 의미가 담긴 문장으로 보기도 하지만 부정적인 비평의 의미로 받아들이는 것이 더 일반적인 듯하다. 셋째, 盧燕平의 〈韓愈創作心態管窺—從送高閑上人序談起〉(《西北師大學報: 社會科學版》, 第35卷 第5期, 1998.9)와 王元軍의 〈韓愈與書法三題〉(《中國書法》 4期, 2004)나 楊伯의 〈韓愈抒情觀之重估—以送高閑上人序爲中心〉(《南開學報》(哲學社會科學版) 4期, 2009), 李沅和의 〈从送高閑上人序看韓愈的書法美學思想〉(《懷化學院學報》 第29卷 第7期, 2010.7) 등은 이 문장을 통해 한유의 창작심태나 서예관 등을 미루어 탐색해보는 논문들이다. 한유의 이 문장과 관련한 고한 초서의 역대 평가는 다음 장에서 조금 더 언급하기로 한다.

린 張籍의 〈강남으로 돌아가는 고한대사를 전송하며(送閑師歸江南)〉, 권 511에 실려 있는 張祐의 〈고한 스님(高閑上人)〉,¹⁷⁾ 권 746에 실린 陳陶의 〈고한 스님에게 제하여 드림(題贈高閑上人)〉이란 시이다. 이 중 張祐의 〈고한 스님(高閑上人)〉 한 수만이 고한 초서의 훌륭함을 노래하고 있으나, 나머지 두 수는 고한의 초서에 관한 시가 아니고 고한과의 이별을 아쉬워하는 송별시거나 스님 고한의 면모와 일상을 노래한 시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고한의 빼어난 풍모와 초서의 훌륭함을 노래한 張祐의 〈고한 스님(高閑上人)〉 한 수만 보기로 한다.

座上辭安國,	연회석상의 여유로운 생활을 마다하고,
禪房戀沃洲.	선방에 거주하며 옥주산을 그리워하네.
道心黃葉老,	도심은 황금 잎사귀처럼 노련해지고,
詩思碧雲秋.	시심은 푸른 하늘 드넓은 가을 같네.
卷軸朝廷餞,	초서 두루마리 조정에 보내지고,
書函內庫收.	글씨 상자들은 황실 부고에 수장되네.
陶欣入社叟,	사단에 들어온 늙은이 즐겁게 맞이하고,
生怯論經傳.	경만 담론하는 동료들 늘 속되다 여기네.
日色屏初揭,	햇빛 비치자 병풍 처음 펼쳐지고,
風聲筆未休.	바람 소리에 붓은 쉬지 아니하네.
長波溢海岸,	긴 뱀침획 해안에 넘실대는 파도인 듯하고,
大點出嵩丘.	큰 점은 승산에서 솟아나는 것 같네.
不絕羲之法,	왕희지의 서법이 끊이지 않았으나,
難窮智永流.	지영의 흐름을 궁구하기는 어려웠지.
殷勤一箋在,	은근한 정이 한 장 글 속에 담겼으니,
留著看銀鈎.	은 갈고리 같은 강경한 획을 두었다 보겠네.

張祐는 자가 承吉이며, 清河 사람이다. 宮詞에 뛰어났고, 중만당 시기에 활동하였다. 일찍이 舍狐楚가 그를 중시하여 관직에 추천하였으나 나가지 않았으며, 만년에는 丹陽 曲阿에 은거하였다.¹⁸⁾ 시인은 고한 스님의 일

17) 이 시는 〈高閑上人善草書〉라 제목한 판본도 있다.

생에서 시작하여, 그의 초서가 황제의 사랑을 받아 특별히 紫衣를 하사받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음을 쓰고 있다. 도를 깨달은 마음인 ‘道心’이란 어휘를 통하여 고한 스님의 수도가 이미 枯寂한 고차원의 단계에 이르렀음을 비유하였고, 시를 짓는 정서라는 의미인 ‘詩思’라는 어휘를 통하여 고한의 시정이 高曠淸遠한 경지에 이르렀음을 형용하였다. 이어서 길게 빼치는 획인 날획(捺劃: 빼침 획)을 ‘長波(큰 파도)’로 비유하고, 큰 점획을 ‘嵩丘(송산)’에 비유함으로써 고한이 창작한 서예의 특징과 초서의 빼어남을 서술하고, 아울러 전대의 초서 대가인 王羲之와 智永을 언급함으로써 고한의 師承을 밝히고 있다. 일반적으로 고한의 초서는 장욱과 회소의 狂草를 계승한 것으로 평가되어지지만, 시인은 역대 최고의 대표적인 초서가인 王羲之와 智永을 언급함으로써 고한 초서의 연원이 더욱 심원하고 수준이 높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밝히고 있다. 이 두 구절은 隋代의 지영스님은 왕희지의 7대손으로서 왕희지의 서법을 계승하였으나, 정작 지영 서법의 흐름은 깊이가 있게 탐구하기가 어려웠음을 말하는 것이다. 특히 지영 역시 스님이었으므로 서승이라는 점에서 고한과 연관관계를 찾아 그가 지영과 같은 위대한 서승의 계보를 잇고 있다는 것을 언급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붓글씨의 점획이 강경하고 迻媚함을 칭찬하는 말인 ‘銀鉤’를 끌어와 그의 서예 작품을 귀중히 여긴다는 것으로 마무리하였다. 이 시는 격률이 엄한 五言排律로 창작하였으나, 조탁의 흔적이 보이지 않아, 시인의 문학적 조예가 깊다는 것을 보여준다.¹⁹⁾

한유의 <고한 스님 송별사(送高閑上人序)>에서의 평가와는 달리 시인

- 18) 이상은 《全唐詩》 권510에 실린 장호의 略傳인데, 令狐楚(766~837)가 장호를 중시한 것과 장호가 고한의 초서를 찬양한 시를 지은 것, 그리고 송대 米芾의 《書史》와 《寶章待訪錄》에 당나라 고한의 초서 <令狐楚詩>가 戶部尚書 康季常의 집에 있는 것을 보았다는 기록으로 미루어 볼 때, 영호초와 장호와 고한 세 사람의 교유가 남달랐음을 짐작할 수 있다.
- 19) 시체에 고한의 이름이 거론된 나머지 두 수 張籍의 <강남으로 돌아가는 고한 대사를 전송하며(送閑師歸江南)>(《全唐詩》 권384)와 陳陶의 <고한 스님에게 제하여 드림(題贈高閑上人)>(권746)은 고한 서예에 대한 내용이 거의 담겨 있지 않아 본고에서는 인용하지 않았다.

장호의 시에서는 칭찬 일변도의 평가를 하고 있다. 한유의 평가와 달리 이러한 칭찬 일변도의 칭송으로 점철된 것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첫째, 가장 큰 이유는 앞서서도 언급했듯이 한유가 고한의 서예를 평한 것이 초서가 크게 무르익지 않았던 20대 중후반 시점의 고한 서예를 비평한 것인데 반해, 장호는 “초서 두루마리 조정에 보내지고, 글씨 상자들은 황실 부고에 수장되네.(卷軸朝廷餞, 書函內庫收.)”라는 구절에서도 알 수 있듯 노년의 원숙한 경지에 이른 이후의 고한 서예를 보고 평가했다는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다. 둘째, 한유는 기본적으로 불교와 승려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시인 장호는 불교에 대해 비교적 우호적인 태도를 지녔던 것도 두 문인의 평가가 크게 달라졌던 이유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²⁰⁾ 이에 더하여 장호는 영호초와 고한과 서로 간에 매우 친숙했고, 장호와 고한이 같은 강남 사람이었다는 개인적인 친분도 크게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차이점이 고한 서예에 대한 후대의 평가가 극단적으로 크게 갈라지는 데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IV. 고한 서예에 대한 당 이후의 평가

고한 서예에 대한 당 이후의 평가는 크게 두 가지 양상을 지니고 있다. 첫째, 고한의 서예가 張旭이나 懷素와 같은 반열에 있을 정도로 뛰어나다는 평가이다. 둘째, 첫째 평가와는 완전히 상반된 평가로 고한의 서예는 장욱과 회소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수준 이하의 아류라는 평가이다. 더욱 심한 경우 극단적으로 술집에나 걸어들 수 있을 정도의 저급한 수준으로

20) 장호는 불교에 대해 매우 우호적이었고 불교 사찰에서 노닐고 승려들과 교류하기를 좋아하였다. 그의 시집에는 불교 사찰을 노래한 시가 33수에 이르고 <혜창 스님에게 제함(題惠昌上人)> 등과 같이 승려들에게 증정한 시도 상당수 있다. 장호가 불교를 좋아하였다는 이러한 점은 吳旭春의 <中晚唐草書僧高閑散論>(《書法賞評》 6期, 2010) 16쪽 참조.

풍격이 현저하게 떨어진다는 견해가 있기도 하다. 특이한 것은 포폄의 경우 모두 장욱이나 회소와 서로 비교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한 가지 더욱 두드러진 점은 당대 이후 고한의 서예에 대한 평가가 한유의 〈고한 스님 송별사(送高閑上人序)〉를 매개로 한 경우가 매우 많다는 것이다. 고한의 서예가 한유의 문장으로 인해 유명해졌다는 언급이 이 때문에 가능했기도 하지만, 고한 서예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데에 일정한 영향을 미쳤던 듯하다.

당 이후에 고한의 서예를 가장 먼저 평하고 있는 문인으로는 북송초의 歐陽脩를 들 수 있다. 구양수는 그의 《集古錄》에서 고한의 초서를 평하여 “고한의 초서가 진실로 이와 같다면 한유의 말이 실록일 것이다. 여릉의 구양수가.”라고 하였는데, 고한이 장욱의 초서 경지에는 이르지 못하였을 것이라라는 한유의 견해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다.²¹⁾ 이러한 평가는 송대 張耒의 《柯山集》에서도 “고한에 대한 한유의 평가가 어긋나지는 않았다.”는 언급으로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²²⁾

이러한 견해는 청대까지도 이어져 청대 학자인 倪濤의 《六藝之一錄》에는 明代 吳寬의 《匏翁家藏集》에서 고한 초서를 평한 글을 인용하여 “당나라 승려는 글씨에 능한 이가 많았는데, 고한과 같은 이가 한 사람이다. 고한은 또 한창려의 문장이 있어서 그의 이름이 더욱 드러나게 되었으니, 대체로 흰 비단에 쓴 글씨는 쉽게 마모되어 세상에 반드시 전해지게 아니지만, 오로지 명인의 문장에 실리게 된다면 더 오랫동안 전해지게 된다. …… 고한의 글씨는 내가 특별히 이리함을 보았으니, 글씨를 아는 자는 반드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고 하여,²³⁾ 한유의 문장으로 인해 고한의 초서가 오래도록 세상에 전해지게 되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비록 고

21) 歐陽脩, 《集古錄跋尾》 권8 “高閑草書審如此, 則韓子之言爲實錄矣. 廬陵歐陽脩.”

22) 張耒, 《柯山集》 권45 〈跋范坦所藏高閑帖〉 “退之之言不妄也.”

23) 倪濤, 《六藝之一錄》 권168 “唐僧多能書如高閑其一人也. 閑又得韓昌黎文, 其名益顯, 蓋縑素易壞不必傳世, 惟載之名人之文, 則傳也久. …… 閑之書予特見此, 知書者必能見之.”

한 초서가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 전적으로 유명 문장가 한유 때문이라는 듯 논평하고 있지만, 당나라 때 초서에 능한 승려로 고한을 언급하고 있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한유의 평을 참고하지 않더라도 고한 초서에 대한 평은 포퓰의 편차가 비교적 명확하고도 크다. 먼저 고한의 서예가 장옥이나 회소와 같은 반열에 있을 정도로 뛰어나다는 평가인데, 송대의 黃庭堅은 “내가 서예를 배운 지 삼십 년이라, 처음에는 주월을 스승으로 삼았기 때문에 이십 년 동안 속기를 떨쳐내려고 해도 벗어나질 못하였는데, 만년에는 소순흙과 소순원의 글씨를 얻어 보고서는 이에 고인의 필의를 체득하였다. 그 후에 또 장옥과 승려 회소와 고한의 목적을 얻어 보고서는 이에 필법의 묘함을 엿볼 수 있었다.”고 하여 장옥과 회소와 고한을 함께 거론하며 고한 초서의 뛰어난 점을 장옥이나 회소와 동열에 두어 함께 거론하였다.²⁴⁾ 또한 宋代 葉夢得이撰한 《石林避暑錄話》에서는 당대 글씨에 뛰어난 승려 세 명을 거론하여 “당나라 때 서예에 뛰어난 승려가 셋 있었으니 지영과 회소와 고한이다.”라고 지영, 회소, 고한을 동열에 두어 차례대로 뛰어난 점을 거론하였다. 이 문장의 뒤에는 “고한의 글씨는 절대적으로 많이 보이지 않는다. …… 신체가 나고 초일한 면이 보여 스스로 일가를 이루었다. 대체로 한유의 서문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이름이 더욱 유명해졌다.”고 덧붙이고 있는데, 고한의 초서를 크게 칭찬하는 평가라 할 수 있다.²⁵⁾

이상의 평가와는 완전히 상반되는 평가로 고한 서예가 형편없다는 견해가 있다. 원대 鮮于樞는 당대 초서 글씨를 평하여 “장옥과 회소와 고한은 모두 초서를 잘 쓴 것으로 유명하였다. 장옥은 顛逸한데 때때로 법도의 밖

24) 黃庭堅, 《山谷外集》 권9 雜文과 《山谷題跋》 권7 〈書草老杜詩後與黃斌老〉 “余學書三十年, 初以周越爲師, 故二十年抖擻俗氣不脫, 晚得蘇子美才翁書觀之, 乃得古人筆意, 其後又得張長史僧懷素高閑墨跡, 乃窺筆法之妙.”

25) 葉夢得, 《石林避暑錄話》 “唐僧能書者三人, 智永懷素高閑也. …… 高閑書絕不多見. …… 神彩超逸, 自爲一家. 蓋得韓退之序, 故其名益重爾.” 이 문장은 명대 張丑의 《清河書畫舫》 권3上에서도 葉夢得的 《石林避暑錄話》에 실린 문장으로 인용하고 있다.

으로 나아갔고, 회소는 법을 지키면서 특히 古意가 많았으나, 고한은 용필이 조잡하여 열 가운데 예닐곱 정도만 볼만 하였다.”고 하여 장옥 회소 고한을 함께 거론하기는 하였지만, 이 세 서예가 중에서 고한의 초서가 가장 조악하였다고 평하고 있다.²⁶⁾ 일단 당대 초서의 대가로 장옥과 회소와 고한을 함께 열거한 것만으로도 고한의 성취를 인정할 수는 있을 듯하지만, 이 세 서예가 가운데 품격이 가장 떨어지는 수준으로 고한의 초서를 평하고 있음은 분명하다. 아울러 선우추는 산곡의 초서까지 함께 평하여 “산곡의 초서에 이르러서는 크게 무너져 다시 수습할 수 없게 되었다.”라고 덧붙이고 있는데,²⁷⁾ 고한의 초서에서 목적의 묘함을 엿보았다는 황정견의 초서까지 혹평하고 있음이 이채롭다.

명대 張丑의 《清河書畫舫》 권1 下에서는 장옥과 회소의 초서를 평하면서 고한과 변광의 초서를 함께 덧붙여 평하기를 “고한 이하[의 초서]는 단지 술집에 걸어들 만하며, 변광[의 초서]은 더욱 미워할만하다.”고 하여 고한 초서의 품격을 장옥과 회소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형편없는 졸작으로 평하고 있다.²⁸⁾ 한 가지 특기할만한 것은 卞永譽의 《式古堂書畫彙考》

26) 鮮于樞, 《古尺牘》 “張長史懷素高閑皆名善草書, 長史顛逸時出法度之外, 懷素守法特多古意, 高閑用筆粗十得六七耳.” 이 문장은 원대 鮮于樞가 장옥과 회소와 고한의 초서를 비교하여 총평한 것인데, 명대 張丑의 《清河書畫舫》 권4 上에서는 鮮于樞와 趙子昂이 글씨를 평한 《古尺牘》의 문장이라 하였다.

27) 鮮于樞, 《古尺牘》 “至山谷乃大壞, 不可復理.”

28) 張丑, 《清河書畫舫》 권1 下 《山林集》 “高閑而下, 但可懸之酒肆, 髣髴尤可憎惡也.” 이 책에서는 이 문장을 미불의 《山林集》에서 인용한 것으로 기록하였으나, 청대 倪濤의 《六藝之一錄》 권8에서는 미불의 《海嶽名言》에 수록된 내용으로 인용하고 있다. 《六藝之一錄》 권300과 《式古堂書畫彙考》 권11에서 米元章의 《海嶽名言》에 실린 문장이라 하여 인용한 원문은 “草書不入晉人格, 徒成下品. 張顛俗子變亂古法, 驚諸凡夫, 自有識者, 懷素少加平淡, 稍到天成而時代壓之, 不能高古. 高閑而下, 但可懸之酒肆, 髣髴尤可憎惡也.”로 되어 있다. 기타 다른 서예 전적에서도 이 문장을 미불의 말로 인용하고 있지만, 米芾의 《海嶽名言》 뿐만 아니라, 미불의 다른 저작인 《寶章待訪錄》과 《書史》에서도 이러한 내용은 찾을 수 없었다. 현재 미불의 《山林集》은 실전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인용에 착오가 있었는지, 미불 저작의 원문이 실전되었는지는 좀 더 논구해보아야 할 듯하다. 아울러 이 문장은 이후 명 張丑의

권8 〈釋高閑千字文〉 조목에도 이 내용이 실려 있지만 여기서는 미불과는 상반된 견해를 제시하면서 “고한의 글씨는 세상에 전해지는 것이 많지 않다. 그의 서학은 장옥에게서 나왔으며, 당나라 때 명성을 얻어 매우 유명하였다. …… 고한의 [초서천자문] 이 글씨를 보면 그가 장옥을 잘 배웠음을 알 수 있다. 그러하니 미불이 술집에나 걸어들만하다고 한 것은 무엇이란 말인가?”라고 한 평가를 소개하고 있는데,²⁹⁾ 미불의 고한 초서에 대한 평가를 반박하며 미불의 말에 동조할 수 없다는 견해를 밝히면서 고한 초서의 빼어남을 옹호하고 있다.

明代 孫鑣이 王世貞의 書畫 題跋에 근거하여 편찬한 《書畫跋跋》에서는 王世貞이 懷素의 〈懷素聖母帖〉을 평한 제발을 인용하여 “당원경이 이 비문 글씨는 위작이라고 하였으니 탁견이라 할 수 있다. 비록 가지런한 아름다움과 맑고 원숙함은 있지만 오히려 약간의 속기를 지니고 있으니 마땅히 고한 무리들이 쓴 글씨일 따름이다.”라고 언급하였는데,³⁰⁾ 회소의 이름을 빌린 僞作을 속기를 벗어나지 못한 고한 같은 무리들이 쓴 글이라 판정하였으니, 고한 초서를 회소보다 품격이 많이 떨어지는 저급한 수준 정도로 파악하였다.

이와 같이 극단적으로 상반된 포폄의 평가가 존재하지만, 포폄의 평가는 유보하거나 기술하지 않고 단순 비교나 열거만 하고 있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 송대 《宣和書譜》 권19에는 초서에 가장 뛰어난 당대의 다섯 서승의 초서를 비유적으로 평한 劉涇의 말을 인용하여 “회소는 비유하자면 옥이고, 변광은 구슬에 비유할 수 있으며, 고한은 금에 비유할 수 있고,

《眞蹟日錄》 권2, 明 汪珂玉의 《珊瑚網》 권21, 明 王世貞의 《弇州四部稿》 권133과 《弇州四部續稿》 권166, 청대 卞永譽의 《式古堂書畫彙考》 권11, 청대 倪濤의 《六藝之一錄》 권145와 권300에도 같은 내용이 그대로 수록되어 있다.

29) 卞永譽, 《式古堂書畫彙考》 권8 〈釋高閑千字文〉 “閑之書不多存於世. 其學出張顛, 在唐得名, 甚顯. …… 觀閑此書, 可知其善學旭矣. 乃米老欲懸之酒肆, 何耶.”

30) 孫鑣, 《書畫跋跋》 권2 下 “唐元卿謂此碑爲僞筆, 可謂卓識. 雖云勻美清熟, 却微帶俗氣應是高閑輩書耳.”

관휴는 유리에 비유할 수 있으며, 아서는 수정에 비유할 수 있다 하였는데 세상에서는 훌륭한 비유라 여겼다.”고 하여 초서에 뛰어난 다섯 승려를 나열하여 모두 나름대로 개성과 특징이 있음을 이야기하였다.³¹⁾ 楊愼의 〈論草書韻會〉에서는 唐代 초서에 뛰어난 승려 9인을 열거하면서 회소와 고한 등을 맨 앞에 예시하고 있다.³²⁾ 당대에 이름을 남기고 있는 수많은 서승 중에서 송대 《宣和書譜》에 열거된 초서에 뛰어났던 당대 서승 5인과 楊愼의 〈論草書韻會〉에서 글씨에 뛰어난 당대 승려 9인 중 범명이 겹치는 이로는 회소, 고한, 변광, 관휴, 아서 등 다섯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몇 가지 평을 종합해보면 고한은 당대 서승 중 최소한 다섯 손가락 안에는 꼽히는 빼어난 초서가라고 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승려 초서 대가인 지영과 회소의 맥을 잇고 있으므로 이들과 동등한 반열에까지 오를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당대 초서승이라고 평할 수 있을 것이다.

고한 초서에 대한 역대 제가의 평을 분석해보면, 크게 몇 가지 특징을 들 수 있다. 첫째, 한유의 〈고한 스님 송별사〉와 연관된 평가가 상당히 많은 수량을 차지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20대 젊은 시절의 고한 초서를 평한 한유의 평가가 이후 고한 서예에 대한 평가의 한 기준이 되었고, 아마도 한유의 평가가 후대의 부정적인 평가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고한 초서에 대한 평은 극과 극의 평가가 공존하는데 이는 장옥과 회소의 평이 칭찬일색인 것과는 대비 된다는 것이다. 셋째, 칭찬과 폄하의 경우를 막론하고 거의 대부분의 평가가 당대 초서 대가인 장옥과 회소 초서와 함께 거론되면서 비견된다는 것이다. 비록 고한 초서에 대해 극과 극으로 포퓰이 상이한 평가가 있긴 하지만, 이러한 몇 가지 사실만으로도 중만당 시기 대표적인 초서승인 고한 초서의 빼어남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31) 《宣和書譜》 권19 “昔劉涇嘗作書話，以懷素比玉，髻光比珠，高閑比金，貫休比玻璃，亞栖比水晶，世以爲善。”

32) 楊愼，〈論草書韻會〉“釋九人，懷素懷仁高閑亞栖髻光景雲貫休夢龜文楚也。” 이 문장은 청대倪濤의 《六藝之一錄》 권281에도 인용되어 있다.

V. 결론

당대의 대표적인 草書僧으로 회소와 고향을 들 수 있다. 당대 서승에 관한 두 번째 작업으로, 본고에서는 서승 고향의 서예와 이를 평가거나 노래한 당대의 시문 및 당 이후 역대 문인들의 고향 서예에 대한 평가를 분석해보았다. 고향의 서예 작품은 당 이후에 몇 점이 전해지긴 하였지만, 이미 송대부터도 많이 전해지지 않았고, 현재는 그의 친필 서예로 <草書千字文> 한 점만이 전해지고 있다. 고향의 서예를 평한 唐代 詩文으로는 한유의 <고한 스님 송별사(送高閑上人序)> 한 편이 《全唐文》에, 詩題에 고향의 법명이 명기된 張籍의 <강남으로 돌아가는 고향대사를 전송하며(送閑師歸江南)>, 張祜의 <고한 스님(高閑上人)>, 陳陶의 <고한 스님에게 제하여 드림(題贈高閑上人)> 등 총 세 수가 《全唐詩》에 수록되어 있다. 이중 張祜의 <고한 스님(高閑上人)>이란 시 한 수만 고향 초서의 훌륭함을 칭찬 일변도로 노래하였고, 한유의 <고한 스님 송별사>에서는 고향의 초서를 부정적으로 평하였다.

일반적으로 포핍의 평가는 유보하거나 기술하지 않고 단순히 다른 서승과 함께 열거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지만, 고향 서예에 대한 당 이후의 평가는 포핍이 크게 차이 나는 경향을 보였다. 크게 고향의 서예가 장옥이나 회소와 같은 반열에 있을 정도로 뛰어나다는 평가와 고향의 서예는 장옥과 회소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이유로 술집에나 걸어들 수 있을 정도의 풍격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저급한 수준이라는 완전히 상반된 평가가 병존하였다. 고향 서예에 대한 평가에서 두드러진 특징은 고향 서예에 대한 평가는 극단적 포핍이 동시에 존재한다는 것, 포핍의 경우 모두 장옥이나 회소와 서로 비교 대상이 된다는 것, 당대 이후의 평가는 한유의 <고한 스님 송별사>를 매개로 한 경우가 매우 많다는 것 등이다.

객관적으로 볼 때, 한유는 排佛이란 기준과 편견을 가진 상태에서, 그리고 아직 완전히 무르익지 못한 20대 초중반의 고향 초서만을 평가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고한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는 어찌 보면 공정성을 담보하지 못한 결론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예다가 대문호 한유의 명망이나 위력은 후대에 많은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었을 것이므로, 이로 인해 장욱이나 회소와 달리 고한 초서에 대해서는 극과 극으로 포퓰이 상이한 평가가 있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한유에게서 기인한 고한 초서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는 공정하지 못한 기준에서 출발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오히려 상대적으로 고한 초서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더 합당하다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비록 부정적인 평가가 없진 않지만 당대의 대표적인 초서가인 장욱이나 회소와 함께 거론된다는 이러한 사실 하나만으로도 만당 시기 대표적인 초서승 고한 초서의 빼어남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 蔡顯良, 《唐代論書詩研究》, 南京藝術學院 碩士學位論文, 2004.4.
 潘運告 主編, 《宋代書論》(中國書畫論叢書), 湖北美術出版社, 2006.11.
 潘運告 主編, 《元代書畫論》(中國書畫論叢書), 湖北美術出版社, 2011.6.
 潘運告 主編, 《明代書論》(中國書畫論叢書), 湖北美術出版社, 2006.11.
 文淵閣四庫全書 電子版, 3.0版, 上海古籍出版社, 2007.
 孫小力, 《中國書僧》(中國佛教文化叢書), 北京, 華文出版社, 1997.
 田光烈, 《佛法與書法》(佛學對中國傳統書法藝術之影響及追求), 頂淵文化事業有限公司, 民國82.3.
 《全唐詩》(上·下), 再版, 臺灣, 宏業書局, 民國71年.
 楊克炎 選注, 《書法咏論》, 遼寧美術出版社, 1993.
 朱關田, 《中國書法史: 隋唐五代卷》, 4刷, 江蘇教育出版社 2014.6.
 周小儒、張揚, 《中國歷代僧侶書法》, 山東畫報出版社, 2011.
 甘中流, 〈韓愈送高閑上人序注析〉, 《書法世界》 第8期, 2003.

- 洪丕謨,〈唐僧釋高閑草書千字文殘本〉,《法音》5期,1988.
- 蔣介夫,〈一文多義-談藝與辟佛-讀韓愈送高閑上人序〉,《閱讀與寫作》5期,1996.
- 李沅和,〈从送高閑上人序看韓愈的書法美學思想〉,《懷化學院學報》第29卷第7期,2010.7.
- 李翠瑛,〈情感與形式共舞-論韓愈送高閑上人序之書法美學思想〉,《漢學研究中心》26卷4號,2008.
- 梁德水,〈韓愈送高閑上人序解讀〉,《青少年書法》(青年版),2006.11.
- 劉宏偉、林鷹,〈關於唐代湖州書家高閑千字文法書辨偽-兼談上海市博物館所藏高閑草書千字文卷爲偽作〉2016.5.
(http://blog.sina.com.cn/s/blog_683986c10102wbg8.html)
- 盧燕平,〈韓愈創作心態管窺-從送高閑上人序談起〉,《西北師大學報》(社會科學版)第35卷第5期,1998.9.
- 王元軍,〈韓愈與書法三題〉,《中國書法》4期,2004.
- 周萌,〈送高閑上人序解題〉,《保定學院學報》第22卷第2期,2009.3.
- 吳敢,〈唐釋高閑草書千字文殘卷及其相關問題〉,《收藏家》2期,2003.
- 吳旭春,〈是褒是貶,是對是錯-再論韓愈送高閑上人序〉,《書法賞評》第4期,2008.
- 吳旭春,〈中晚唐草書僧高閑散論〉,《書法賞評》6期,2010.
- 楊伯,〈韓愈抒情觀之重估-以送高閑上人序爲中心〉,《南開學報》(哲學社會科學版)4期,2009.
- 禹在鎬,〈懷素草書와 역대 懷素草書歌에 대하여〉,《中國語文學》第77輯,2018.4.

< Abstract >

In the Tang Dynasty, there were many monks who had knowledge and cultural literacy: monk poets(Shi seng) who wrote poems well; monk painters(Hua seng) who painted pictures well; and monk calligraphers(Shu seng) who were excellent in calligraphy. There are countless monks of the Tang Dynasty who were well known as monk calligraphers. Among them, Huai Su and Gao Xian are the representative monk calligraphers of the Tang Dynasty. As a second review on the monk calligraphers of the Tang Dynasty, this study, first, briefly introduces Gao Xian's life and calligraphy. Next, this study analyzes the literary works of the Tang Dynasty that sang and evaluated Gao Xian's calligraphy and the poems of the Tang Dynasty, as well as the evaluations of Gao Xian's calligraphy by the literary men since the Tang Dynasty.

Some discriminating features in the evaluations of Gao Xian's calligraphy are as follows: Extreme praises and criticisms exist at the same time; the praises and criticisms of Gao Xian's calligraphy are compared with those of Zhang Xu's and Huai Su's; the evaluations since the Tang Dynasty were very much mediated by Han Yu's *Farewell speech for monk Gao Xian*. Although, unlike Zhang Xu and Huai Su, extreme praises and criticisms exist for Gao Xian's cursive script, the fact that Gao Xian is compared with Zhang Xu or Huai Su, who were representative cursive script calligraphers in the Tang Dynasty, demonstrates the excellence of Gao Xian's cursive script, who was the representative cursive script calligrapher in the Late Tang period.

Key Words : 唐代(Tang Dynasty), 書僧(Shuseng(Monk Calligrapher)), 高閑(Gao Xian), 書藝(Calligraphy), 草書(Cao shu(grass script; cursive script; Cursive style of writing)), 韓愈(Han Yu)